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 요즈음 학문으로 비유하자면 동물분류학에 해당한다. 동물의 형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적인 일이며,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생명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역의 동참을 의미한다. 그들의 일은 의식주 해결과는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일을 통해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일의 수고와 괴로움이 추가된 것이다. 농사를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영경위로 인해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해야 흙에서 나온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는 노동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생산성이 낮던 고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고된 노동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다. 성직과 일상의 직업을 구분하던 중세에서는 직업도 이분법적으로 성스러운 일과 세속의 일로 나누는 경향이 있

었다. 중세 스콜라주의에서는 성직자들의 사색과 명상의 삶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 땀 흘리는 세속적 직업과 노동의 가치를 낮게 여겼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의 일이 되기보다 고역의 노동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성직과 속된 일이 구분되고, 성스러운 주일과 속된 6일로 구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상 속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종교개혁은 일에 대한 이분법적 생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수도원의 삶을 비판하면서 세상의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소명(vo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제후 중심의 봉건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교회 제도와 타협하면서 초기의 직업에 대한 소명이론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대 직업의 소명의식과 자본주의는 칼빈주의적 직업윤리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부산물로 보고 있다. 이 직업윤리에서는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절약하는 것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었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와 달리 트릴취나 비엘러는 "노동과 자본에서 발생한 이윤은 그것을 벌어들인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을 들어

칼빈주의를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재세례파로부터 파생된 모라비안들은 재산을 공유하고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정주의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했으나 봉건주의의 열매를 누리던 영주들에게 진압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칼빈주의는 사유재산을 찬성했으며, 재산의 불균등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각자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이 분명하다. 성경의 경제정의를 하나의 경제체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칼빈주의 역시 어느 하나의 경제체제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존 스토트는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일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인간의 육체를 쯤먹고 영혼을 억압하는 일들도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로 내몰리게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일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 개인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개개인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일을 통한 수입보다 그 일을 통해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일은 관계의 문제이다. 일터 안에서 또 일터 밖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다. 즐겁게 소통할 수 있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일터가 좋은 일터이다. 셋째, 일은 공동의 문제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이며,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일터에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무 경쟁적이거나 부정직하거나,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저항해야 한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오염, 탄소배출, 에너지 소비가 높은 일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하나님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창조사역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신다. **묵상: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어떤 관계인가?**

세계관 운동의 나침반 '세계관학교(OWA)'

선택공리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나?" 신앙 좋은 사람들도 자녀나 전도대상자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게 된다. 수학을 공부하던 대학 시절 나도 이 질문에 시원한 답을 찾지 못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차츰 멀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이성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점 기독교를 지지하게 되었다. 수학은 논리적으로 하나씩 증명해가면서 학문체계를 쌓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을 역으로 따지고 내려가면 더 이상 증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공리(axiom)'라고 부른다. 중학교 때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그 예다. 다섯 개의 공리로부터 모든 평면기하의 정리를 증명해 낼 수 있다. 현대 수학도 학문 자체의 토대인 집합론은 열 개 정도의 공리로 시작한다. 그중에서 '선택공리'는 당연히 보이는데 다른 공리들에 비해 다소 어렵다. 하지만 현대 수학의 깊이 있는 결과들은 대부분 이 공리를 사용해야 하고, 이걸 사용해도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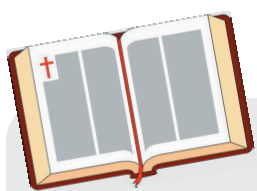
공리를 빼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신의 존재 문제는 수학에서 선택공리처럼 받아들이기 다소 주저되지만, 더 이상 증명 불가능하고, 모순이 없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다. 수학에서처럼 이것을 빼도 학문체계를 이루고, 더해도 학문체계를 이루지만 후자(고등학문)는 전자(초등학문)를 포함하는 보다 큰 체계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심오한 결과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현명한 수학자들처럼 당연히 후자일 것이고, 나도 교회로 돌아왔다. 사실 신의 존재 여부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에 초등학교에서는 답을 못 구해서 엉뚱하게 결론짓지만(골 2:8), 고등학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무신론적(세상적) 세계관에 비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제로섬 사회이다. 내가 갖든지 아니면 네가 갖든지 둘 중 하나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데 이래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섬김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도 포함하고 있고, 더욱 심오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설이고, 많은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실제 경험하는 일이다. 저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웬은 예일대학 교수로 있다가 데이브레이크공동체로 들어가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마지막까지 했다. 나중에 중증장애인 아담이 죽었을 때 그가 한 조사(弔詞)의 일부를 소개한다. "그는 내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내 상담자요, 스승이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어떤 책이나 교수, 영적 지도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아담을 "내 상담자요, 스승이요, 인도자"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인가 거꾸로 된 것 같고 조사이기 때문에 흔히들 하는 문학적 수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사 전체와 그의 책들을 보면 이것은 그가 실제로 느낀 정직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가능한 감동적인 장면이

다(고전 1:27~28). 우리가 아담이다. 우리가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서로를 치유한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의 의미이다. 우리는 역설이 가능한 세계관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다른 세계관들이 난무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수 24:15).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답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답은 세계관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더욱 명료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서서평이나 헨리 나우웬 같은 훌륭한 경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10여 년 온누리 세계관학교를 섬기면서 많이 배우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김혁 성도**
(서초A공동체, 서울대 명예교수)



김혁 성도
(서초A공동체,
서울대 명예교수)



주일강단



김상훈 목사, 윤정희 사모

삶으로 부르는 노래

미가 6:6~8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윤정희 사모: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여행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아이들 11명과 살면서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은 입양 홍보대사를 꿈꿉니다.”

윤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잘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입양되면 가장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치아교정을 하고 싶고, 브랜드 신발을 신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별것 아니라면서 모두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고, 가족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보다 가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 홍보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정희 사모: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만 잡았습니다. 저만 ‘아들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꼭 잡은 손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족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표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자람하며 살고, 우리 아들은 입양이 왜 가치 있는지를 홍보하며 삽니다.”

김상훈 목사: “저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했습니다.”

윤정희 사모: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모니를 이뤄가고, 삶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김상훈 목사: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참 잘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엔지니어로 남보다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아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유산이 계속 났습니다. 네 번이나 유산한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타까워만하다가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제가 아내 옆에서 도와주면 “잘했다” 소

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정희 사모: “남편이 저를 간호하려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왔다면서 ‘우리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고, 네 번이나 아이를 유산해서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렇게 대책없고 단순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김상훈 목사: “대책 없이 사는 삶이 어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책 없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통장과 환경을 만드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말씀 앞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면 제가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믿고,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더니 무대책이 가장 좋은 대책이었습니다.”

윤정희 사모: 남편과 3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좋은 대책 덕분에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합을 보완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제게 해 준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입니다. 이 말이 쓴 뿌리가 가득했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내면의 쓴 뿌리를 놓지 못하고, 던질 수 없고,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남편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가족 안에서 가장 성실하고 묵묵하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우주 최고의 멋진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훈 목사: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보다 잘나고, 능력 있게 성장하기를 바라면

서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연약한 아이들을 만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상처와 연약함이 저의 것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꼈더니 그것을 들어 쓰셨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 가정에 왔지만,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키웠으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 사모: 우리 부부의 유전인자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국의 아이들로 키워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저희 부부를 세우셨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목사: 사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 뒤흔들려 죽어 없어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들입니다. 위임 받은 자들입니다.

윤정희 사모: 혈연공동체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약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며 자매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형제자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연약공동체의 삶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김상훈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 판에 새길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윤정희 사모: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연약한 아이들, 어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김상훈 목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만 본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것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어도 서로 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윤정희 사모: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연의 위치에서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누리고, 베풀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며 삶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또 하나의 가족 '교회'

“가족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으로 가족이 된 주인공들의 아주 특별한 편지

매년 5월만 되면 유독 바쁜 가족이 있다. 김동석 목사, 김인옥 사모(한국입양선교회, 하늘꿈교회)네 가족이다. 김동석 목사와 김인옥 사모는 하림(24세) 군을 낳고, 찬수(20세, 생후 6개월 입양), 시연(17세, 생후 4개월 입양), 범진(32세, 23세 성인입양) 군을 입양했다. 입양으로 가족이 된 주인공들이 아주 특별한 편지를 썼다. 입양된 자녀가 입양해 준 부모에게, 친아들이 입양을 선택한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입양된 자녀가 부모에게

“공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셋째 아들 찬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하시나요? 친구가 내가 입양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 엄마 아빠는 가짜 부모야. 널 낳아준 엄마는 널 버렸어. 넌 고아야!”라고 계속 놀렸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 엄마 아빠는 저에게 입양은 축복이고, 가족을 만나는 거라고 늘 말씀해주시고, 나도 우리 가족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입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때렸는데, 그 친구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한테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 입양된 거 맞아요. 그런데 자꾸 저를 고아라고 놀려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저를 입양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하고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공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것이 참 많은데 그중

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저를 입양해주신 거예요. 만일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우리 가족이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투닥거리고 싸우긴 해도 우리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입양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 셋째 아들 찬수가

요즘 엄마만 보면 많이 고맙고 미안해요. 중학교 들어가서 친구관계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저에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생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엄마한테 쏟아부은 것 같아요. 나보다 먼저 입양된 찬수 오빠는 말썽도 안 부리고, 교회찬양팀 봉사하고, 사람들이 찬수 오빠 멋지다고 할 때 마다 저는 찬수 오빠에 못 미친다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화와 불만, 자격지심을 엄마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입양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입양했냐고 엄마한테 짜

증내고, 진짜 가족이 없다고 이상한 합리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엇나가는 저를 엄마가 끝까지 품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주셔서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요새는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엄마한테 입양되어서 행복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중에 저도 아이를 키우게 되면 엄마처럼 키우고 싶어요.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내 아이에게도 사랑 많이 주면서 키우고 싶어요.

엄마. 많고 많은 아이 중에서 저를 선택해주셔서, 사랑 많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딸로 자라서 너무 좋아요. 엄마 딸이어서 세상 어떤 딸보다 많이 행복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제가 엄마를 많이 챙길 거예요. 엄마가 저를 사랑 듬뿍 주면서 키워줬듯이 그때 저도 엄마를 챙길 거예요. 걱정마세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 엄마니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 막내딸 시연이가



입양으로 가족이 된 김동석 목사 가족. 사진 왼쪽부터 큰아들(성인입양) 범진, 김인옥 사모, 넷째 시연(입양), 김동석 목사, 둘째 하림(친생자), 셋째 찬수(입양).

친아들이 입양을 선택한 부모에게

“모두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둘째 아들 하림입니다. 제가 다섯 살 때 갑자기 동생이 생겨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셨을 때 누가 내 동생이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라 영아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동생이 생기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때 우리집으로 온 찬수와 같이 살면서 느낀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동생이 낯설거나 저와 다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한 친생 자녀인데 무슨 특권을 누리거나 동생들과 형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지내온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욱 돈독히 해주었어요. 형, 나, 동생들이 입

양됐건 낳아주셨건 모두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저에게 동생 둘과 형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자랐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형과 동생들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군 복무할 때 부모님과 형, 동생들 생각하면서 힘든 훈련 이겨냈어요.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형과 동생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소 표현을 잘 못하는 이 서투른 아들을 이해해주세요.

/ 둘째 하림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야”

너희들을 만난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라.

먼저 하림이에게 고맙구나. 어린 두 동생을 잘 챙기고, 엄마 아빠를 도와줘서 고맙다. 네가 중학생 때 8살이나 많은 형이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을 찬성해주고, 형이 우리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배려해줘서 고맙다. 입양한 두 동생과 큰형 틈에서 늘 너의 자리를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찬수, 시연아. 너희들은 우리에게 첫사랑 같은 설렘을 주는 자녀들이야. 시연아,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줘서 고맙다. 올해 대학생이 된 찬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방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너무 착실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큰아들 범진아. 우리 가족으로 가장 늦게 합류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세 명의 동생을 거느린 장남이 됐구나. 가족이 되는 순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순서야. 너희들을 키울 때 때로는 땅이 꺼질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듯 절망한 적도 많았어.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앞뒤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너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어 있더라. 날마다 보고 살아가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보석들이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앞뒤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엄마 아빠는 너희들 등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로 살아갈게.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 너희들의 등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가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으신다. 김민숙 권사(강서공동체)도 그렇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다. 김민숙 권사는 생수병과 마스크에 말씀을 적어 이웃들을 전도하고, 지인들에게 SNS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민숙 권사는 시인이다. 전도를 하다 보면 시상이 떠오른다. 그때마다 차곡차곡 노래한 시를 엮어 시집을 냈고, 그 시집으로 또 전도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그 행복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전도하는 시인 김민숙 권사

어쩔 그렇게 선할 수 있을까? 김민숙 권사의 첫인상 말이다. 학생들이 손꼽는 인자한 선생님의 모델이 있다면 김민숙 권사일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렇게 선한 인상으로 전도하면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

김민숙 권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심금을 울리는 간증도,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변증도 아니다. 전도자가 먼저 예수님 만난 기쁨에 사로잡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바로 그 행복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전도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나부터 먼저
행복해집니다
전도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전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김민숙 권사의 시집 <내 영혼의 감사>에 수록된 ‘복음의 능력’이다. 이 시 한 편에 김민숙 권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민숙 권사는 입술을 뿔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노래한다. 김민숙 권사도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다. 진정한 행복을 맛봤다.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못 박으셨어요. 할 수 없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행복을 저만 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부터 전도했습니다.”

그 세월이 20여 년이 넘었다. 2016년 CGN TV 유튜브 채널에서 본 조셉보소 형제의 길거리 전도영상도 김민숙 권사의 전도 열정에 힘을 보탰다. 그 영상을 보고 노방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새벽기도에



행복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행복한 김민숙 권사

서 하나님께 전도방법을 물었다.

“우연히 조셉보소 형제가 홍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 노방전도 방법을 여쭙더니 조그만 생수병에 말씀 구절을 붙여서 전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수병을 건네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수병을 건네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너무 좋아요”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래도 용기를 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 아파트 경비원, 야쿠르트 아주머니 등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생수병을 건네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 한 스무 번쯤 찾아가 전도했더니 조금씩 열매가 맺혔다.

“처음에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매주 찾아가니까 반겨주시더라고요. 동네 시장에서 채소 파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면서 도라지랑 상추도 싸주시고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인데 모두 함께 전도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지를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도했는데 풍성한 열매까지

맺히니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전도하면 시상이 떠오른다”

꽃을 보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살며시 다가가고 싶다
네가 얼마나 예쁜지
말해주고 싶다
-진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따듯한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김민숙 권사 시집에 수록된 시의 일부다. 김민숙 권사는 전도할 때마다 시상이 떠오른다. 매년 100여 편의 시를 쓰고 있다. 지금까지 신앙시집을 세 권이나 출판했다. 곧 네 번째 시집을 출판할 예정이다. 김민숙 권사는 그 시집으로도 전도한다. 본인이 쓴 시를 전도대상자에게 SNS로 보내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시집을 선물하기도 한다.

“노방전도를 시작하고 400여 편 정도의 시

를 썼어요. 1년에 100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시상이 떠오르거든요. 시는 곧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쓴 시집은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집인 셈입니다. 이웃들에게 선물하면 반응이 꽤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좋게 봐주시고요.”

최고의 전도 비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김민숙 권사의 노방전도에 어려움이 있다. 좀처럼 생수병을 받지 않아서 다른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요즘 필수품인 마스크에 말씀과 영접기도문을 동봉해서 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어제도 퇴근길에 전도했는데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전도할 때는 거절 당하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쌓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당해도 그냥 감사해요.”

김민숙 권사는 SNS를 활용한 전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매일 아침 지인 수백 명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다.

“말씀을 보내도 되겠냐고 먼저 물어보고 새벽예배에서 좋았던 말씀을 적어서 지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을 기다리는 친구들, 지인들, 전도대상자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도에 활용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김민숙 권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니까요. 그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도 비결은 전도자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재정 위기로 교회에서 하는 ‘부채탈출 119’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빚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면 좋을 텐데, 계약이 곧 끝나서 걱정이 큼니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계약직이고, 빚도 있는 상태라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멘토님도 재정적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도와주십시오.”

부채만큼 사람을 짓누르는 게 없다. 빚 문제로 낙담하고 염려하고 있을 청년들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나눌까 한다.

나는 IMF 외환위기 때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를 나와 창업했다. 의욕적으로 만든 첫 제품이 보기 좋게 실패했다.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나는 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모른다는 자부심에 차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즈음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교만과 자만심을 내려놓게 되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게 됐고, 새로운 제품으로 무장한 회사는 번창했다. 우쭐해진 나는 확장경영을 하면서 직원을

더 채용하고 홍보비를 늘렸다. 수출을 한다면서 해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국내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다. 제품이 2% 부족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결과는 대규모 적자였다. 매출 없이 부채만 늘어서 집안 전체가 망할 위기까지 이르렀다. 직원들은 분열되었다. 여리고 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아이 성에서 행한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큰 회개를 한 우리 회사는 겉모습에 치중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하게 내실을 기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직원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지향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 나는 잘못된 선택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착각했었다. 이것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경영을 교회에서 배웠다. 예배에서 배웠고, 공동체에서 배웠다. 그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 싶다.

첫째, 예배가 가장 먼저다. 환란과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

미를 가진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시간이 예배이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을 때 염려와 고민이 사라지고, 참 소망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 세상이 준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던 청년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잘 되지 않아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왜 카페를 하는냐고 물어보았다. 몇 달 후 그 청년은 카페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선택했다. 그 직장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선택했고 소망을 품고 일했다.

둘째, 변화다. 깨닫기는 했는데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옛 습관에 빠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행하는 말씀묵상과 기도로 가능하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셋째, 인내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소망이 있으면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부채는 출발선이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고 돌아오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인내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인내하며 끝까지 쫓대를 향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것이다.

넷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신앙고백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경외하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이다. 감사는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 청년들에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듯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장문석 장로
(CHPLUS청년부 대표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인생 여정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부는 둘이 하나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다. 부부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이 여정은 부부의 노력과 헌신, 사랑에 달려 있다. 멋진 여정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등산하는 것을 보았다. 아빠와 엄마, 청소년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다. 등산하고 있는 아빠의 가장 큰 목표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빠는 가족들을 재촉하며 목표인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며 가족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엄마의 주된 관심은 정상이 아닌 듯했다. 엄마는 “꽃이 너무 아름답다”, “다람쥐가 정말 귀엽네”라고 말하고 있었다. 엄마는 산을 오르며 만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커 보였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힐끗 보더니 “전진! 앞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며 다시 가족들을 재촉했다. 엄마와 아빠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졌다. 한참을 지나서는 서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딸은 아빠 곁에서 열심히 걸었고, 아들은 뒤에 따라오는 엄마와 함께했다.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두

팀으로 나뉘었다. 그 가족이 정상에서 모였다. 그런데 정상에 도달한 환희와 기쁨이 온데간 데없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만 보는 듯했다. 정상 도달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였다.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함께하는 등산이었다면 멋진 여정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부부의 모습을 ‘DISC 성격유형’ 관점으로 본다면, 남편은 주도형인 D(Dominance)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는 안정형인 S(Steadiness) 혹은 사교형인 I(Influence)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주도형은 행동을 결정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Fast-paced). 경쟁적이며, 주도적이고, 지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은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취했고, 가족 모두 정한 시간에 목표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안정적이고 신중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Slow-paced). 남편의 바람처럼 속히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었다. 거기다가 사교형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성격답게 주변 환경을 살피는 데 관심이 있었다. 속도와 신중함이 부부 사이에 긴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부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행동을 선택했다. 만일 가정이 아니고 직장이었다면 팀원을 교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조직 구성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은 직장과는 다르다. 가정은 팀원을 바꿀 수 없다. 성격과 행동 유형이 달라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특히 부부라면 더욱 마음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

성향이 다른 부부가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지향적인 배우자에게 목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에 가슴이 뛰는지를 묻고, 속도를 맞추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 혹은 사교적인 배우자에게는 힘들지 않은지, 자신의 행동이 너무 빠르지 않은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걸음을 맞추면서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공감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부부가 함께하는 여정은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하며 가야 하는 길이다. 마음이 맞지 않다면 함께 하는 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로 수시로, 많은 소통을 하며 걸음걸음을 맞춰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암 3:3).

부부의 서로 다른 모습이 문제에 직면하게

하기도 하고, 진정한 하나 됨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도 한다. 가족에게 큰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목표지향적인 배우자 덕분에 목표에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관계지향적인 배우자 덕분에 세심하고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나 됨의 반대는 단절과 분열이다. 부부 관계가 단절과 분열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 됨을 향한 부부의 시간들을 가져보자. 둘이 하나가 될 때 함께하는 여정이 더욱 빛나고 행복해진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보자.

“당신과 함께한 인생 여정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갈 인생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적용하기: 지금까지 결혼생활의 여정 동안 배우자로 인해 감사하고 고마웠던 한두 가지를 서로 나누어 보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열기 뜨겁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참가신청 홈페이지



지난 5월 18일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예배.

15년째 태국에 살고 있는 주영희 성도는 친구의 소개로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에 소속되었다. 주영희 성도는 “영적 돌봄을 받지 못한 지 오래됐고, 주변에 한국어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온라인커뮤니티 덕분에 한국어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의 영적 돌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다”고 고백했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참여 열

기가 뜨겁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인 온라인커뮤니티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모이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참가신청을 한 성도에게 교회에서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Zoom)를 보내준다

온라인커뮤니티 모임은 찬양, 메시지, 플러그(소그룹)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플러그(Plug)는 온라인커뮤니티의 소그룹 모임을 의미한다. 전기콘센트에 연결하는 플러그처럼 언택트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과 컨택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소그룹 ‘플러그 모임’, 소그룹 리더 ‘플러그리더’, 소그룹 구성원(멤버) ‘플러그멤버’라고 칭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의가족들’ 가정의 달 이벤트

5월 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가족사진 게시

IT사업팀에서 가정의 달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를 배경으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5월 30일까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온누리의가족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야 한다. 인스타그램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사진을 보내면 된다.

#온누리의가족들 이벤트에 참가한 성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식사권, 가족 케이크 상품권, <보라통독>(이상준 목사 저), 커피 기프트콘 등 상품을 준다. 당첨자는 5월 31일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발표한다. 당첨된 가족사진은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계정에 게시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6월 5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청소년반과 부모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반은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모반은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28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회비는 5만 원(부부가 신청하면 7만원).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2-3215-3532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주는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피당 15만 원.

알콩달콩 부부학교는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How Mission 참가자 모집

How Mission 총체적 선교스쿨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1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How Mission은 온라인 아웃리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다. 선교지의 필요에 맞춘 총체적 아웃리치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010-7336-6094

대학청년부 ‘멘토 비전 나이트’

5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대학청년부에서 ‘멘토 비전 나이트’를 개최한다. 5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멘토 비전 나이트는 공동체 멘토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리다. 대학청년부 멘토들과 교역자, 청년 리더십들이 참석한다.

대학청년부 멘토 비전 나이트에서는 사역보고영상, 레크리에이션, 멘토 격려 영상, 교역자 특송, 김승

수 목사의 설교, 멘토 소개, 소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는 “멘토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대학청년부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면서 “멘토 비전 나이트가 대학청년부 멘토님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J4U청년부 ‘멘사부일체’

멘토에게 묻는 결혼, 연애, 가정 질문

지난 5월 16일 J4U청년부가 아주 특별한 토크쇼 ‘멘토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천 연애 토크쇼-멘사부일체’(이하 멘사부일체)를 개최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연애, 결혼, 가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면 멘토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답하는 시간이었다. J4U청년부 소속 4명의 부부 멘토(김일호, 류필분, 정종우, 김영순)가 대답했다.

‘부부로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종우 멘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김영순 멘토는 “남편은 내 편이 안 되어줄 때가 많다”면서 “말씀을 깊이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내 편에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

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류필분 멘토는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와 아웃리치에서 좋은 사람을 살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호 멘토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종우 멘토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조건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영순 멘토는 “정말 잘 사는 부부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며 “절대로 인간적인 속셈과 계산을 따지지 말고 용기 있게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권유했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온누리상담센터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성도다. 구비서류는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 등이다. 수련 비용은 한 학기당 30만 원(총 2학기)이다. 매주 슈퍼비전과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2-793-2997

양재 02-570-7536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7기 모집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월 11일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비전을 품고 이 시대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아버지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135-2865

